

⊕ 교회목표 ⊕

- 1. 천국시민 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Pilgrim

⊕ 2012년도 표어 ⊕

그리스도인, 세상의 소금과 빛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마5:13-16, 벰전2:11-12)

⊕ 행동지침 ⊕

- 1. 온 가족 한 교회 섬기기 운동
- 2. 다음세대를 위한 신앙교육 운동
- 3. 바른신앙, 바른신학, 바른생활 운동

† 발행인 : 박노철 발행 :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210 전화:(02)558-1106 팩스 : (02) 558-2107 http://seoulchurch.or.kr

⊕ 마태복음 강해

예수님의 시험 (마 4:1-11)

The Temptation of Jesus (Matt. 4:1-11)

예수님의 세례식은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했던 과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으신 후 바로 이어서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인 예수님께서 어떻게 피조물에게 그것도 타락한 원수 마귀로부터 시험을 받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동시에 사람이십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이셨다가, 어떤 때는 사람이신 분이 아니라,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이시고 또한 항상 사람이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배고프셨고, 피곤하셨으며, 슬픔과 고난에 눈물을 흘리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셨기 때문에 인간적인 고뇌가 무엇인지를 아시는 분이셨습니다.



박노철 목사
(서울교회 담임)

The baptism of Jesus is an absolute necessity in achieving God's salvation. And just right after that, Jesus is tempted by Satan, even though Jesus is God. He is the creator who made something out of nothing. So, how can Jesus who is God be tempted by his own creation, even though it is the corrupted enemy, the devil?

Jesus is God while He was a man. It is not that God is one day God and the next day a man, but that He is always God and man.

He was also hungry and tired, and dropped tears in sorrow and trouble. He knows what the sufferings of human beings are because He is also fully human.

1. 시험받으신 이유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히 2:18).

예수님께서서는 자신이 시험을 받으신 경험이 있으시기 때문에 시험과 유혹 가운데 힘들어 하는 우리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으십니다. 예수님은 한 인간이 40일 동안 먹지 않으므로 경험 되는 엄청난 고통과 유혹을 실제로 겪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왜 모든 인간적인 외로움과 두려움과 갈등과 시험과 유혹을 다 경험하셨을까요?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이해하시기 위해서 우리와 똑같이 유혹을 받으셨다.”고 말씀합니다.

2. 광야에서의 시험

“그 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1절).

오직 8개의 단어로 구성된 1절은 너무나 거대한 신학적인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시고, 하늘 문이 열리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하늘 아버지의 음성이 들려 온 바로 그 시점에서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우리에게도 은혜가 충만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결심할 때 시험이 온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신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뜻을 생명을 걸고 이루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광야는 사람도, 길도, 의지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곳입니다. 마귀는 예수님이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도록 시험하는 장소를 광야로 택하셨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는 예수님으로 하여금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시도록 아무것도 없는,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광야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유혹을 이기고 시험을 통과하면 주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루 말할 수 없는 놀랍고 아름다운 방법으로 우리를 사용하시게 될 것입니다.

이런 영적인 진리를 깨닫게 된 욥이 다음과 같이 신앙을 고백합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 같이 되어 나오리라”(욥 23:10). 이와 같은 욥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1. The reason why He was tempted

“Because He Himself suffered when He was tempted, He is able to help those who are tempted” (Hebrew 2:10).

Jesus is able to help us who undergo the sufferings by test and temptation because He Himself experienced temptation. Jesus as a man actually experienced an awful suffering and temptation through fasting forty days.

Why did Jesus undergo all of human loneliness, fear, conflict, test, and temptation? The writer on the Hebrews said, “Jesus was tempted just like us in order to understand our weakness.”

2. The Test in the desert

“Then Jesus was led by the Spirit into the desert to be tempted by the devil (v. 1).

The verse one which is composed of eight phrases contains deep theological content.

After Jesus was baptized, He was full of the Spirit. At that moment heaven was opened. A voice from heaven said, “This is my Son, whom I love; with him I am well pleased,” At that point in time, Jesus was tempted. We never forget that when we are full of grace and decide to live with God's will, we should be tempted.

The fact that Jesus was tempted is because He is the Son of God, and He decided to lay down His life to fulfill God's will.

Jesus was tempted in the desert. There is nothing in the desert: no person to rely on, no way to go through. The reason why the devil brought Jesus to the desert to tempt him was for Jesus to give up all the things and not to achieve God's will. Yet although the Spirit led Jesus into the desert where there was nothing, it was there where Jesus only had one thing to look at, focus and rely on, which was God.

My beloved Christians!

If we resist the temptation of the world and pass through the test, the Lord will use us for God's glory in a wonderful and fantastic way.

Job who realized this spiritual truth confessed his faith in this way: “But he knows the way that I take; when he has tested me, I will come forth as gold” (Job 23:10).

I sincerely hope that such a confession of Job will be ours in the name of Jesus Christ.



2012 홍해작전

“BRIDGE 2012 회복과 부흥”

-세대와 세대를 잇는 부흥의 역사-

6월 6일(수)~25일(월), 새벽5시 본당

“BRIDGE 2012 회복과 부흥”
- 세대와 세대를 잇는 부흥의 역사 -
6월 6일(수)~25일(월) 새벽5시 본당

2012년 홍해작전이 박노철 목사의 인도로 6월 6일(수)부터 25일(월)까지 새벽5시에 본당에서 열린다.

서울교회 홍해작전은 택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출애굽 시키시고, 홍해를 열어주셔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신 우리 하나님께, 서울교회 모든 성도들이 새벽을 깨우며, 합심하여 조국의 안전과 복음화, 서울교회와 한국교회의 부흥, 가정과 개인의 기도제목을 내어놓고 간절히 기도함으로써, 오늘 우리 앞에 놓여있는 홍해도 믿음으로 건너고자 하는 “말씀과 기도운동”이다.

이번 홍해작전의 주제는 “BRIDGE 2012 회복과 부흥”이며 - 세대와 세대를 잇는 부흥의 역사-라는 부제로 제2대 박노철 목사 위임이후 첫번째 맞는 홍해작전 특별새벽기도회로 말씀과 기도가 은혜롭게 진행될 예정이다. 모든 성도들은 새벽을 깨우며 주님전에 나와 함께 기도하며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

목사님, 궁금해요!

이종운 목사 성경난해구절 해설 [50]

(문 45) 민수기서나 구약성경에 제시된 통계숫자는 얼마나 신빙성이 있습니까?

(답) : 민1장-4장과 26장에 기록된 인구조사통계에 대해 의심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시내광야 같은 불모지에서 60만 장정이 함께 살았다는 것만도 기적이지요 여인들과 자녀까지 합치면 200만은 족히 넘는 수를 그것도 12지파로 나누었다고는 하지만 싸움에 나갈만한 사람의 기준도 정확치 않았으므로 그 수의 신빙성에 의심이 갈만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광야에서 하늘로부터 만나와 메추라기를 떨어뜨리셨고 물을 바위에서 내실 때 기적으로 그들 수에 필요한 만큼 제공하셨습니다. 200만이 먹고 마실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 같은 기적은 성경의 첫 장부터 마지막장까지 가득 차 있습니다.

하지만 처음 태어난 자의 수는 너무 적게 계산된 것 같습니다. 60만 장정 중 일개월 이상 된 처음 태어난 남자의 총계가 겨우 이만이천이백칠십삼명 뿐이라는 것입니다.(민3:42-43) 그렇다고 이 수가 불확실하다는 근거도 없는 것입니다. 이때가 광야생활 2년째요 더욱이 첫아들은 하나님께 바쳐야 하는데 그들 대신 레위인을 하나님께 돌리도록 했기 때문에 이때 레위인보다 처음 태어난 자가 273명이나 더 많아 속전을 위하여 한사람에 다섯 세겔씩 바쳤던 것으로 보아(민3:42-47) 이 수는 정확했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출1:15에 애굽왕이 두 명의 산파에게 명하기를 이스라엘 여인들이 아들을 낳으면 죽이라 했으나 둘이 600만을 챙기기에 가담치 않았을 것입니다. 고로 산파 두 사람의 보고는 신빙성이 없었을 것이고 따라서 애굽정부의 통계 역시 믿을 수 없었을 것이고 따라서 애굽정부의 통계 역시 믿을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당시 이방나라들의 통계는 그들의 과학적 수치임에도 불구하고 불확실한 것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각 지파 족장 12명을 선정하고 20세 이상 남자의 수를 세었고 군대와 같은 조직을 통해 조사를 하였던 것입니다. 당시 60만 명이 넘는 인구가 등록된 것만 보아도 그 조직과 질서가 정연했음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인구의 총수는 603,550명이었고 그것은 9개월 전 회막 건축 때 반 세겔의 세를 내면서 조사한 것과 일치하고 있습니다.(출38:26) 더욱이 이것은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해 명하신 대로 행한 것이므로 절대적인 것이었습니다.

(다음주 계속)

2012 단기선교를 준비하면서

인도네시아에서 펼쳐질 하나님의 역사



김규태 집사(인도네시아 단기선교팀 단장)

단기선교팀의 단장으로 말랑을 가게 되었습니다. 과거 수도 자카르타나 발리 등을 여행한 경험은 있으나 이름도 생소한 말랑이라는 곳은 이름처럼 그렇게 부드러운 곳은 아닌것 같습니다.

그곳에서 열심히 선교하시는 서광종, 이성일 부부 선교사님들의 이야기를 꼭 듣지 않아도 인도네시아라는 나라 자체가 주는 무엇인가 거칠고, 비교적 원시에 가까운 이미지가 상당한 각오를 요하는 것 같습니다.

두 분 선교사님이 파송된 이후에 처음 맞이하는 큰 행사여서 벌써부터 그곳 선교지에서는 모두가 대단한 기대들을 하고 있는것 같습니다.

의료시설이 워낙 열악한 곳이라 만연된 피부병과 치료없이 방치된 각종 외상 환자들이 이번 의료팀을 학수고대 기다리고 있고, 대부분의 아이들이 식사의 양과 질이 형편이 없어서 감기와 철분 부족으로 만성 질병은 물론 성장 발육이 늦다는 선교사님들의 애절한 소식은 벌써부터 가슴이 미어지는 아픔이 있습니다.

또한 그곳의 여성들은 영양부족으로 피부가 흠뻑이

많으며, 머리카락은 윤기가 없고 저혈압으로 손과 발은 항상 차갑습니다.

미용이라고는 돈 안드는 땀은 머리카락이 그곳에서 퍼머는 모든 여성들의 바람이라, 이번 미용팀은 참 눈코 뜰새없는 여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곳 어린이들이 마음 설레이며 기다리는 우리 교육팀의 각종 프로그램은 찬양과 율동, 영화상영 등의 즐겁고 유익한 다채로운 일정으로 순조롭게 잘 준비되고 있습니다. 교육팀의 구성원인 대학부 형제들의 사기는 가나안땅으로 들어가는 여호수아와 같이 적극적이고 용맹스럽기까지 합니다.

그 곳의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즐겁고 참된 신앙의 뿌리를 내릴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선교는 목적지인 말랑을 캠프로 하여 "바뚜" "라왕" "토사리" "말랑" 등 극히 열악한 4개 지역에 집중적인 사역을 펼칠 계획이며 그곳 선교사님과 같이 합류할 현지 성도들의 비장한 각오는 그 어느때보다 크고 뜨겁습니다.

사랑하는 서울교회 성도님들의 기도와 후원에 힘입어 이슬람국가인 인도네시아와 이지역에 주님의 복음이 왕성하게 전해지는 큰 역사가 일어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순절은 유대인의 첫 곡식을 감사하는 절기로부터 시작되었다. 첫 곡식을 감사하는 이 절기는 유월절 이후 50번째 되는 날에 지키는 절기이다. 이 날은 흔히 '맥추절'(출 23:6)이라고 불리는데,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날에 밀과 보리의 첫 추수를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이다. 오순절은 또한 '칠칠절'(출 34:22)이라고도 하는데 그것은 초실절에서 7주가 지난 후이기 때문이다. 결국 오순절은 첫 곡식을 추수하는 감사의 예전이였다. 유대인들은 이 절기를 통해 하나님께서 그들의 육신을 위하여 육의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심을 기뻐하며 감사하였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그들의 영혼과 정신을 새롭게 출몰시켜 주시는 분으로 여겼다. 수확의 첫 열매를 드리던 감사의 절기가 이제는 성령 하나님의 입재로 말미암아 교회의 첫 열매를 맺게 되는 날이 된 것이다.

또한 오순절은 강한 바람과 함께 불의 혀 같은 것이 제자들에게 임하여 각기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였던 때(행 2:1-41)를 기념하는 절기로 승화되었다. 베드로가 오순절의 회중들에게 유대의 전 역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이 성취된 것까지를 일목요연하게 선포하는 능력 있는 설교를 하였을 때 3천 명의 회심자를 얻는 역사적인 선교의 장이 열리는 기적이 발생했다. 결국 오순절 성령강림주일은 교회가 메시아의 완성된 시간의 상징으로 지키는 날이 되었다.

한국기독교학술원 공개세미나

교회의 공적 책임

-공동선(The Common Good)과 공적 진리(The Public Truth)-

한국기독교학술원(원장 이종윤 목사) 제 41회 학술 공개 세미나가 지난 21일(월) 한국교회 100주년 기념관 소강당에서 열렸다.

한국기독교학술원은 1991년 이래 해마다 두 차례씩 그 시대와 상황에 따른 주제를 가지고 신학발표를 하여 왔는데, 올 전반기에는 '교회의 공적 책임: 공동선(The Common Good)과 공적 진리(Public Truth)'라는 주제로 공개 세미나를 했다.

이종윤 목사님은 "근자에 이르러 우리 사회에서 이념, 빈부의 갈등, 복지, 인권, 종교적 문화적 충돌, 에너지 고갈, 환경오염 등의 문제가 증가되면서 그 어느 때보다 공동선(commune bonum)의 문제가 대두되고 있으며, 모든 이에게 선 또는 일반복지, 공공 관심이라면 공익을 추구해야 하는 경제, 정치, 언론, 심지어 교회도 이 문제에서 예외일 수 없다. 또한 복음은 공적이든 사적이든 진리이다. 그러나 그것이 공적진리(Public Truth)로 받아들일 경우 기독교인만을 위한 진리가 아니라 비기독교인들에게 기독교를 설명하는 진리가 되어야 하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공적인 영역의 담론의 바탕을 성경에서 찾으려, 오늘날의 한국교회를 기독교인의 시각 뿐 아니라 비기독교인들이 기대하는 공교회의 모습을 찾고자 하여 이번



세미나의 주제를 교회의 공적 책임으로 택하였다"고 이번 세미나의 성격을 설명했다.

이번 공개 세미나에는 발제자와 논찬자가 각각 2명씩 참석했으며, '공동선(The Common Good)을 어떻게 실천할까?'라는 송용원 박사의 발제에 대해 박경수 박사가 논찬을, '공적 진리(The Public Truth)의 입장에서 본 한국교회의 공적 책임'이라는 류태선 박사의 발제에 대해 김재진 박사가 논찬을 했다.

이 날 경건회의 설교에서 이수영 목사님(학술원 부원장, 새문안교회 담임목사)은 "공동선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부터 가지셨던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의 하나님 나라이며, 하나의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하므로 성취될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하며, 이에 교회는 교회의 공적 책임

을 다해야 한다"고 했다.

이 날 4명의 패널들은 마지막 토론시간을 통해 "한국교회는 루터의 종교개혁 500주년(2017년)을 바라보면서 다시금 우리 자신에 대한 개혁의 메스를 가해야 될 때이다. 그리고 개혁은 무엇보다 진정한 회개를 통한 불신앙의 극복과 진정한 신앙의 갱신에서 시작되어야 하며 한국교회를 대변한다고 하며 저마다 다른 주장을 하는 모습을 앞으로도 지속해 나간다면, 한국교회의 미래에는 소망이 없다고 했다. 따라서 한국교회 지도자들과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공적 진리로서의 복음에 입각해서 한국교회의 공적 책임 수행을 위해 루터나 칼빈과 같은 열심과 헌신으로 제 2의 종교개혁을 한다는 각오로 분발해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후반기 학술공개세미나는 오는 10월 22일(월) 오전 10시부터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 대강당에서 "WEA-WCC의 Dialogue"라는 주제로 개최한다.

허숙 권사(편집부)



토요 어린이 학교
교사, 스태프 모집

2012년 9월 1일 개강 예정인 토요 어린이 학교 교사와 스태프로 함께 하실 분들을 추가로 모집합니다. 세례교인으로서 관심 있으신 분들의 많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교사지원서 비치 및 제출: 1층 사무국
(문의: 유년부 지도목사 김안성 010-8829-7818)

1. 성품교육: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어린이!

경청, 긍정적인 태도, 배려, 감사, 순종, 절제 등의 12가지 좋은 성품을 다양한 활동을 통해 배우고 연습합니다. (교재: 좋은나무 성품학교 출

간 『성품나라』)

2. 영어성경공부: 영어로 복음을 자신있게 말하는 어린이!

복음의 핵심을 이해하고 그것을 영어로 말할 수 있게 됩니다. (교재: 정철영어연구소 출간 Who made the world?)

3. 축구교실 및 야외 놀이: 함께 뛰놀며 즐거운 어린이!

축구교실 및 야외 놀이를 통해, 아이들이 친구들과 뛰놀며, 크게 웃고 함께 즐거워하게 됩니다.

☆ 교육대상: 유아 / 초등학교 (선착순 각 30명/연령별, 수준별 운영)

☆ 일시: 토요일 오전 11시 - 오후 2시 (9월 1일 개강)

장한 어머니상을 받고

내게
와줘서
고마워



진현미 집사 (6교구)

창작예술이 세상에서 가장 고뇌스러운 일이다' 라고 탄식하며 20대를 보내던 내가 스물여덟에 결혼을 했고 그 해 첫아이 은빈이의 엄마가 되었다.

작가로서, 엄마로서, 아내로서, 며느리로서, 딸로서... 동시에 여러 역할이 주어졌다. 욕심이 많아 일과 육아 무엇 하나 버리지 못하고 별려놓고 수습하느라 정신 없이 바쁘게 지내던 중 어느새 두 아이의 엄마가 되어 있었고 5살, 3살 이제 한숨 돌리나 싶어 5년 만에 예쁜 하이힐도 마련을 했다. 그 하이힐을 두 번이나 신었을까? 셋째를 알리는 두줄, 셋째는 고민이었다. 이제 좀 더 멋진 작가로 날개 달고 날아갈 것 같은 내 앞날에 또 다시

내 발목을 잡힐 것 같은 부담감, 그런 나에게 비해 남편은 아주 단호했다. "하나님이 주신 귀한 선물이야, 괜한 생각일랑 말어?" 그러고는 내가 흑시나 편마음 먹을까 봐 주변사람들에게 소문을 다 내버렸다. 남편의 반응에 나도 마음을 고쳐먹고 감사히 받아들였다. 임신 중에 학교강의 제의가 왔고, 마치 계획 한 듯이 출산일도 방학시작하고 1월초!...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이렇게 놀랍도록 구체적이신가!!

세번째 수술은 유난히 아팠다. 아이는 건강했고 들던 대로 셋째는 울어도 예쁘고 동시에 셋째는 듬직하고 미안하고 들 때는 가운데 껴 안쓰럽다. 그러면서 셋다 더 애뒀다. 내리사랑...

세 아이의 엄마가 되었다고 교회에서 장한 어머니상을 주신다. 준비된 자리

에 앉았다, 하나님이 "현미야, 장하다!"라고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는 것 같아 순간 몽클해져 눈물이 나오려는 것을 참았다. 세 아이의 엄마 노릇에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생활에도 마음은 더 여유로워 졌다. 출산, 육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피부로 느끼고 그 놀랍고도 위대하심을 느낀 후 나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결과에 대해서는 주시는 것에 감사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오늘도 잠든 세 아이를 바라보며 더 잘 해주지 못한 미안한 마음에 한번씩 쓰다듬어본다.

늘 부족한 엄마인데...
사랑스러운 은빈, 은율, 은파!
"내게 와줘서 고마워..."

동정

■ 이종윤 원로목사는 5월30일(수) CGN-TV 호국의달 메시지 녹화를 한다. 5월31일(목) 한국기독교학술원 학술연구교수 모임을 갖는다. 6월1일(금) 총회재정부 특강을 한다. 6월2일(토) 사랑의 쌀 운동과 올림바타대학 이사회에서 각각 설교한다.

■ 수상: 박석은 성도 (4교구, 시온찬양대 솔리스트) -음악교육신문사 주체 음악콩쿨 성악부분 전체 차상

■ 독주회: 구민영 성도 5월31일 목 오후 8시 반포아트홀 (서초구 반포동 18-3 래미안 퍼스티지 중심상가 5층)

■ 이전개업: 8교구 박두호 장로, 한성옥 권사 한쌍재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 1343-2 단국프라자1층 031-889-1400

■ 이사: 5교구 조대제 집사 윤석자 집사 수원시 영통구 영통2동 신나무실6단지아파트 644동 1504호
8교구 조창제 성도 / 강애자 권사 강북구 미아동 두산위브 102동 803호

■ 주간식당 봉사: 제2권사회(5.27) 빌립선교회(6.3)

■ 금주의 식사: 신삼철 집사 이태인 집사 가정
김윤섭 성도 박명석 권사 가정
(자녀 결혼 감사하며)

산벚꽃 같은
소요리 문답부소풍



안다혜 집사
(16교구,
소요리문답부 교사)

포도나무의 순이 낫는가, 석류 나무가 꽃이 피었는가 아가6:11

라일락이 흐드러지게 피는 사월, 그 잔인한 달이 지나기 전에 창조주의 사랑스런 숨결이 날뿔뿔 느껴지는 들로 나갔다.

몸 아픈 자매와 연료하신 권사님들 께안

고 늘 학문에 힘쓰고 사역에 애쓰시는 김은수 목사님과 부족함을 항상 넉넉히 채워주시는 오유식 부장 집사님, 그리고 여러 교사들과 성도들의 축제는 오정수 장로님이 가꾸신 베델 하우스에서였다. 그 앞 유장히 내다보이는 들판과 강과 언덕배기에 지천으로 봄꽃이 만연해 있었고 저 작은 제비꽃들 사이에 속 개는 권사님들 손길이 아기사슴처럼 날랐다.

공기는 달착지근히 입에 착 감기우고 흐트러진 봄꽃들 사이에 앉아 풀내를 맡으며 김은수 목사님의 설교<예녹의 삶이 자비하신 여호와께 어떻게 맞추어졌는지> 그 놀라운 강해를 가벼운 차림으로 풀밭 사이에서 듣다니~감동은 오래 가고 가슴도 뻘뻘해졌다.

베델하우스 -꽃이 주인이었다.

지천에 핀 연산홍 가운데 푸른 잔디에서 찰밥과 툇퉁나물과 소고기와 상추쌈들이 우리를 한층 들뜨

게 하여 누구나 소녀였고 소년들이었다. 우리도 꽃이었다.

일상에 찌든 먼지와 이악한 세상에 지친 우리는 보물찾기에서도 누누히 양보하는 미덕과 선물에서도 아끼지 않는 사랑을 나누었다.

나이 상관없이 날 것 인양 생선처럼 퍼덕퍼덕 뛰면서 피구도 하고 심봉사처럼 눈 감고 형제를 신뢰하는 게임도 하면서 우리는 결속 되었고 우리는 깊이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또 배웠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답고 ~ 시편13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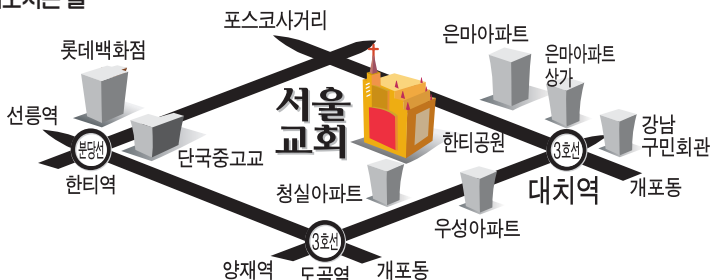
해가 싹뿔 넘어갈 무렵 다시 일상을 향해 버스에 몸을 싣고 돌아오는 길, 하늘을 향해 실미소를 날리며 물었다.

주님, 오늘도 우리 주님 얼마나 기쁘셨나요?

■ 예배 및 집회

구분	시간
주일예배	I부 오전 9시
	II부 오전 11시 20분
	III부 오후 2시
찬양예배	주일 오후 5시
영어예배	주일 오전 11시20분
수요일예배	I부 오전 11시
	II부 오후 7시
금요기도회	오후 8시20분
새벽기도회	오전 5시30분

■ 교회오시는 길



■ 서울교회QR코드



서울 주간기도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 2012년 흥해작전을 통하여 우리의 가정과 일터, 그리고 교회와 민족 가운데 회복과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 인도네시아와 캄보디아 단기선교팀의 모든 팀원들이 훈련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사랑과 말씀으로 무장될 수 있도록
- 한 마음, 한 가족 잔치를 통해 교구가 사랑으로 하나되며 다락방 사역이 든든히 세워질 수 있도록